



## ‘킬러’ 맞대결

◀부산 안정환·서울 박주영▶

오늘 시즌 첫 골사냥 대결

화려한 부활을 노리는 안정환(32·부산)과 네 경기째 골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주영(23·서울)이 올해 처음 ‘킬러 대결’에 나선다.

부산 아이파크는 30일 오후 8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천적’ FC서울과 삼성 하우젠컵 2008 4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컵 대회 2승1패로 A조 2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은 서울전이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부산은 유독 서울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 지난 2005년 3월 20일 이후 무려 10경기 연속 무승(3무7패)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서울과 싸워 2무2패를 당하면서 6실점에 단 1골만 성공시켰던 터라 올해 첫 대결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1.5군 위주로 내보냈던 부산은

서울전에 안정환을 비롯한 베스트 멤버를 총출동시켜 잃진 승리를 따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1998년 해설같이 등장해 이듬해 21골 7도움으로 K-리그 MVP를 따냈던 안정환과 2005년 18골 4도움으로 신인왕을 차지한 박주영의 올해 첫 대결은 이를감 많아도 팬들의 큰 관심을 끈다.

지난해 수원에서 부진했던 안정환은 올해 부산에서 ‘형님 같은’ 활약을 감독의 신임 속에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지만 지난달 19일 시즌 첫 골을 터트린 이후 5경기 연속 골이 없어 분위기 반전이 절실했다.

박주영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6일 광주전에서 멋진 프리킥 결승골로 ‘부진 탈출’을 선언하는 듯 했지만 4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지 못하고 있다.

오랜 부상에서 복귀한 김은중과 정조국을 비롯해 1골 1도움을 기록한 ‘새내기’ 이승렬의 가세로 공격수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박주영도 세월 귀네슈 감독의 신임을 얻기 위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K-리그를 대표하는 ‘노장 사령탑’의 맞대결도 눈길을 끈다. 통산 199승째를 거둔 김호(64) 대전 시티즌 감독은 홈 구장에서 통산 193승째를 달리고 있는 김정남(65) 울산 현대 감독과 올해 첫 대결을 치른다.

김호 감독이 울산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K-리그 최초로 통산 200승 고지를 넘는 사령탑이 된다. 그러나 대기록 달성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은 최근 울산전에서 7경기 연속 무패(2무5승)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세 차례 대결에서도 모두 패해했다.

대전은 26일 전북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던 기세를 살려 시즌 첫 2연승의 기쁨과 김호 감독의 200승 달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 뿐이다. /연합뉴스



### 스릴 만끽…시원한 ‘파도 터널’

29일 태하티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안 섬인 텔루(Teahupoo)에서 열린 세계 빌라봉 프로 서핑 선수권대회 타이티 누이 본 자피 예선 리운드에서 히와이의 제이미 오브라이언

/연합뉴스

## “호주·일본, 올림픽 축구 죽음의 조”

팬들이 생각하는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 본선 ‘죽음의 조’는 호주와 일본이 속한 A조와 B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올림픽 조 추첨을 실시했던 지난 21일부터 네이버는 상대로 실시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죽음의 조’ 질문에 29일까지 응답한 3만3천974명 중 전체의 44.5%가 일본이 포함된 B조를 꼽았다.

B조에서는 아시아 최강자 일본과 유럽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네덜란드, 아프리카 강호 나이지리아, 북중미의 미국이 두 장의 8강행 티켓을 놓고 다투다.

B조 다음으로는 호주와 지난 대회 우승팀

### 네이버, 네이버 상대 설문조사

### 한국, 中 다음으로 수월한 조

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코트디부아르가 속한 A조가 25.9%를 얻어 조별리그 판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온두라스, 카메룬, 이탈리아와 맞붙는 D조는 23.5%가 세번째로 꼽았다.

개최국 중국이 브라질, 뉴질랜드, 벨기에와 함께 편성된 C조가 6.1%에 그쳐 가장 수

월한 조로 평가됐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홈페이지에는 경쟁이 치열한 순서로 A조(41.25%), B조(25.56%), C조(19.65%), D조(13.55%)가 차례로 나와 한국이 속한 D조가 가장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출전 사상 첫 메달권 진입을 선언한 박성화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앞서 “조주첨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호주와 지난 대회 월드컵 아르헨티나, 유럽의 복병 세르비아,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속한 A조가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A조를 ‘죽음의 조’로 분류했다.

3회말 인창고는 실책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1사 1.2루 상황에서 땅볼을 처리하던 유격수 이은영이 베이스를 밟지 않아 만루가 됐다.

다음날 인창고는 선발 장성열을 내리고 에이스 김태훈을 투입하면서 민루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김태훈은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4번타자 조영선을 삼진으로 둘러세우며 위기를 넘기는 듯 했지만 중견수 류준영이 김태훈의 외야 플라이를 놓치면서 평범한 플라이가 짹쓸이 2루타가 되어 5-1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1회 불안한 출발을 했던 광주일고의 에이스 장민제는 7이닝동안 4피안타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광주일고는 14년후에서 허경민의 3루타가 터

지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조영선의 희생플라이로 2-1 전세를 뒤집었다.

앞서 8경에 합류했던 광주 진흥고는 30일 오후 6시 30분 인천과 덕수고 경기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고 8강 진출

###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

광주일고가 제42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구리 인창고를 6-1로 제압하고 8강에 올랐다.

광주일고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16강 경기에서 상대의 수비실수로 3점

을 뽑으며 가볍게 8강에 합류했다.

1회 불안한 출발을 했던 광주일고의 에이스 장민제는 7이닝동안 4피안타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광주일고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배명고와 장충고의 승자와 준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된다.

앞서 8경에 합류했던 광주 진흥고는 30일 오후 6시 30분 인천과 덕수고 경기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男핸드볼 한·일전

### 내달 3일 광주서

남자 한일핸드볼 국가대표 경기가 오는 5월 3일 광주서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려 오랜만에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핸드볼 경기를 선보인다.

(사)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하고 (주)LG헬레콤, FUFU가 후원해 열리게 된 이번 대회는 오는 9일 일본 도요타시에서 2차전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세계스포츠 사상 초유의 올림픽 예선 경기를 이끌어낸 한국과 일본의 우호를 증진하고 아시아핸드볼연맹의 활동에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던 지난 1월 올림픽 예선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한일간의 국가대표 A매치를 통해 경기감각을 키울 목적으로 보인다.

대한핸드볼 협회는 이번 대회 입장객 선착순 2천명에게 응원티셔츠를 제공하고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브라스 밴드공연 등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국 남녀 중고배구 남고부 결승(14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LG : 롯데>(18 : 00-KBSN SPORTS), <우리 : 삼성>(18 : 20-Xports), <두산 : 기아>(18 : 30-MBCESPN), <SK : 한화>(21 : 00-SBS스포츠)

### 5월1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4강2차전 <첼시 : 리버풀>(03 : 30-MBCESPN)

### 6월1일(금)

▲KBO리그 5월 1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2일(토)

▲KBO리그 5월 2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3일(일)

▲KBO리그 5월 3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4일(월)

▲KBO리그 5월 4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5일(화)

▲KBO리그 5월 5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6일(수)

▲KBO리그 5월 6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7일(목)

▲KBO리그 5월 7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8일(금)

▲KBO리그 5월 8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9일(토)

▲KBO리그 5월 9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0일(일)

▲KBO리그 5월 10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1일(월)

▲KBO리그 5월 11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2일(화)

▲KBO리그 5월 12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3일(수)

▲KBO리그 5월 13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4일(목)

▲KBO리그 5월 14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5일(금)

▲KBO리그 5월 15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6일(토)

▲KBO리그 5월 16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7일(일)

▲KBO리그 5월 17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8일(월)

▲KBO리그 5월 18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19일(화)

▲KBO리그 5월 19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20일(수)

▲KBO리그 5월 20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21일(목)

▲KBO리그 5월 21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22일(금)

▲KBO리그 5월 22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23일(토)

▲KBO리그 5월 23주차(14 : 30-SBS스포츠)

### 6월24일(일)

▲KBO리그